

2021년 3/4분기
창원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

2021. 6

1. 조사목적

- 창원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Business Survey Index: BSI)는 창원지역 소재 제조기업의 체감 경기 수준에 대한 이해와 창원지역 기업들이 처한 경영환경을 조사하여 창원지역의 기업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지역기업에는 경영상의 의사결정 참고자료로, 기업지원 기관·단체에는 시의적절한 지원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

2. 조사방법 및 기간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21. 6. 9 ~ 25(휴일제외 13일 간)
- 분석대상 : 182개 응답업체

(단위 : 매, %)

	규모별		수출, 내수 비중	
	300인 이상	300인 미만	수출위주 기업 (수출 50% 이상)	내수위주 기업 (수출 50% 미만)
매수	27	155	42	140
비중	14.8	85.2	23.1	76.9

	업종별							
	IT·가전	자동차부품	기계	철강·금속	석유·화학	조선·부품	식음료	기타
매수	37	39	49	19	9	11	7	10
비중	20.8	21.4	26.9	10.4	5.0	6.0	3.9	5.5

3. 조사내용

- 기업체감경기 현수준 및 향후 전망
- 체감실적 및 전망, 매출액, 영업이익, 자금사정
- 기업경영환경 요인

4. 분석방법

- 기업경기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는 전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응답업체 수를 바탕으로 아래 공식으로 지수화한 것임

$$\text{BSI}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text{전체 응답업체수}} \times 100 + 100$$

- BSI 100 : 체감경기 ‘호전’과 ‘악화’로 응답한 업체수가 같음
- BSI 100 이상 : 체감경기 ‘호전’으로 응답한 업체가 많음
- BSI 100 미만 : 체감경기 ‘악화’로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 2021년 3분기 전망BSI '106.0', 2분기 실적BSI '105.1'

- 지난 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기준치 상회했고, 실적치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3분기 창원지역 제조업의 체감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매출액(112.1)은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영업이익(97.8), 설비투자(92.9), 자금조달 여건(86.8), 공급망 안정성(87.9), 사업장 가동(97.3) 등 기준치 하회
→ 매출액 증가에도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됨.

● 업종별 3분기 전망BSI

- 기계(126.5), 화학·정유(122.2), 자동차 및 부품(115.4), 식음료(114.3), 철강·금속(110.5)은 3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
- 자동차 및 부품, 2분기 체감경기(94.9)는 악화했지만 3분기는 호전될 것
- 기계, 실적과 전망 모두 기준치를 크게 웃돌아 회복세 이어갈 것

● 응답업체(n=182) 53.3%, 상반기 실적 목표치 달성했거나 초과할 것

- 실적달성 요인, 내수시장 회복(37.0%), 대외여건 개선(34.1%)순으로 응답
- '300인 이상' & '수출위주' 기업, 글로벌 수요 증가 등 대외여건 개선
'300인 미만' & '내수위주' 기업, 내수시장 회복을 가장 많이 꼽아...

● 하반기 예상되는 대내·외 위험요인은

- 환율 및 원자재가격 변동성(32.1%)과 기업부담법안 등 정책리스크(20.6%)
- '300인 이상' & '수출위주' 기업, 미·중 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심화,
'300인 미만' & '내수위주' 기업, 내수시장 침체를 상대적으로 많이 꼽아...

● 코로나19 종식(포스트코로나) 이후

- 시장 및 기술 환경, '서서히 이전 상황으로 복귀할 것'(61.5%)으로 전망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은 31.3%에 그쳐...
-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업의 역할 인식
'경제적 가치 우선시 하되, 사회적 문제 해결에 더 관심 가져야' 73.6%
'사회적 문제 해결보다 경제적 가치 창출에 더 매진해야' 15.9%
'사회적 문제 해결의 직접적인 주체로 나서야'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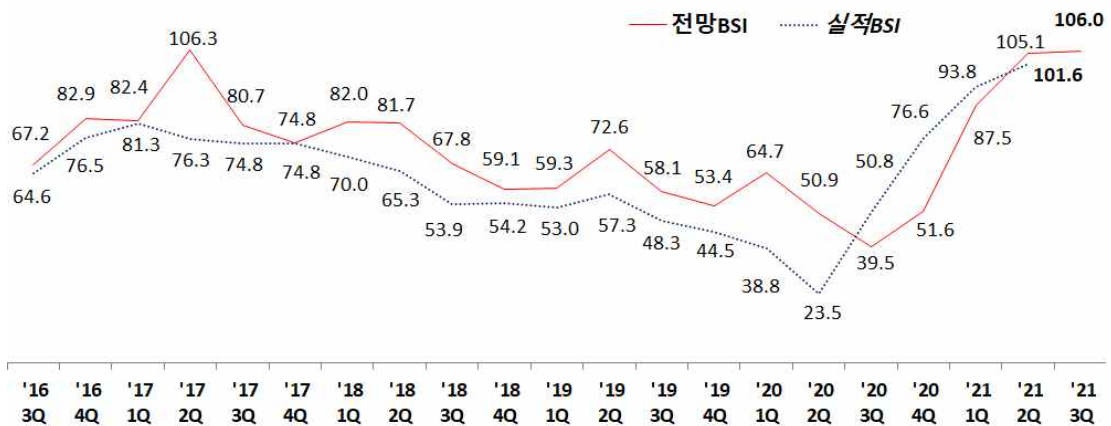
Ⅲ

2021년 3/4분기 기업경기전망

1. 창원 제조업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 창원지역 2021년 3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전망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106.0'으로 조사되었음. 지난 분기 전망BSI가 '105.1'을 기록한데 이어 2개 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상회했음.
- 각국의 양적완화와 코로나19 집단방역의 기대감이 높아진데 따라 비즈니스 교류와 물류활동이 늘어나면서 생산 및 수출물량이 증가하는 등 지난해 크게 위축되었던 기업 체감경기가 점차 회복하는 모습임.

창원지역 제조업 전망 및 실적 체감경기(BS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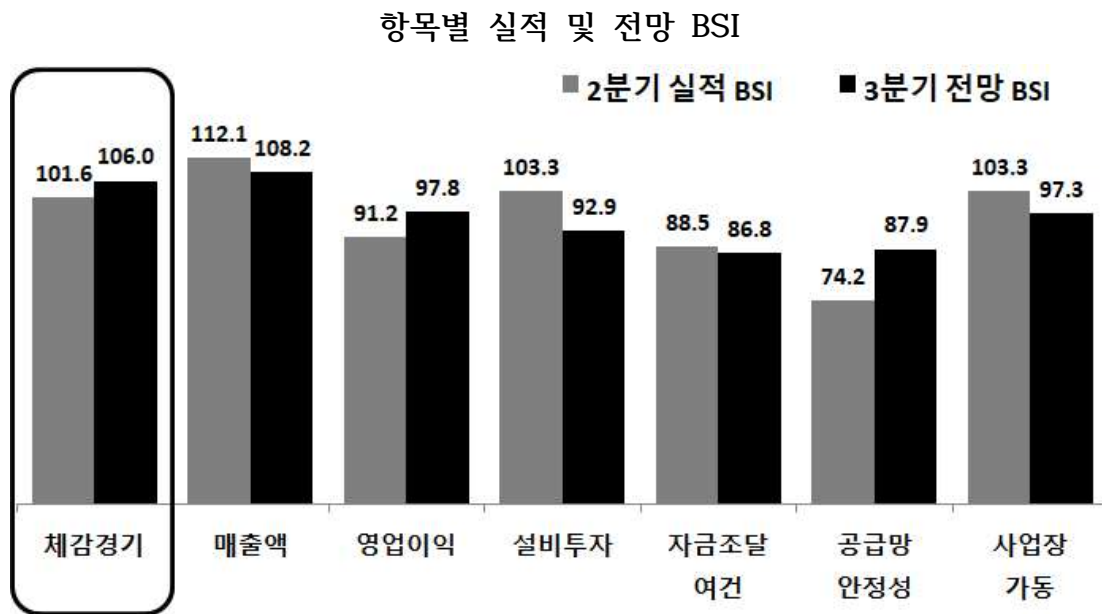


※ 체감경기 지수는 절대적인 실적이 아닌, 앞선 분기와 비교해 상대적 체감정도를 의미하므로 지수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2021년 2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나타난 실적BSI도 기준치를 상회한 '101.6'으로 조사되었음. 지난 분기 전망BSI가 기준치를 상회한데 이어 실적치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체감경기 회복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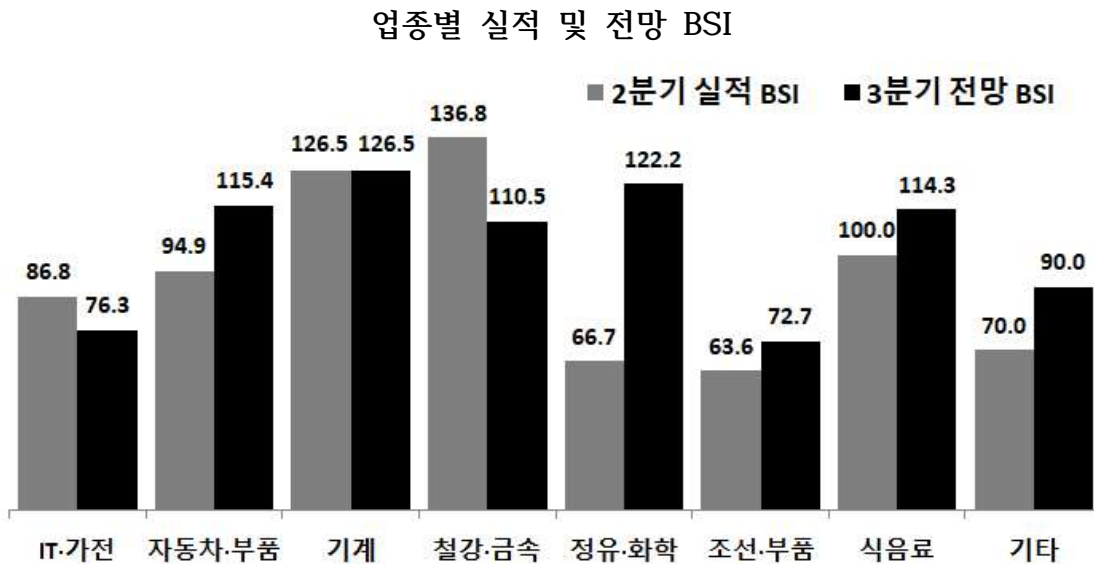
2. 항목별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 하지만 조사 항목별 전망BSI를 살펴보면, 매출액(112.1)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이익(97.8), 설비투자(92.9), 자금조달 여건(86.8), 공급망 안정성(87.9), 사업장 가동(97.3) 등은 모두 기준치를 하회했음.
- 매출액 증가가 전망되지만,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은 여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됨. 실제로 창원상공회의소가 지난 5월 실시한 ‘창원지역 기업 경영환경 조사’ 결과에서도 창원지역 제조업체의 수주량과 생산량은 호전되었으나, 채산성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임금상승 등 생산비용 증가, 해상물류비 상승, 반도체 수급애로, 금융비용 증가 등을 꼽았음.



3. 업종별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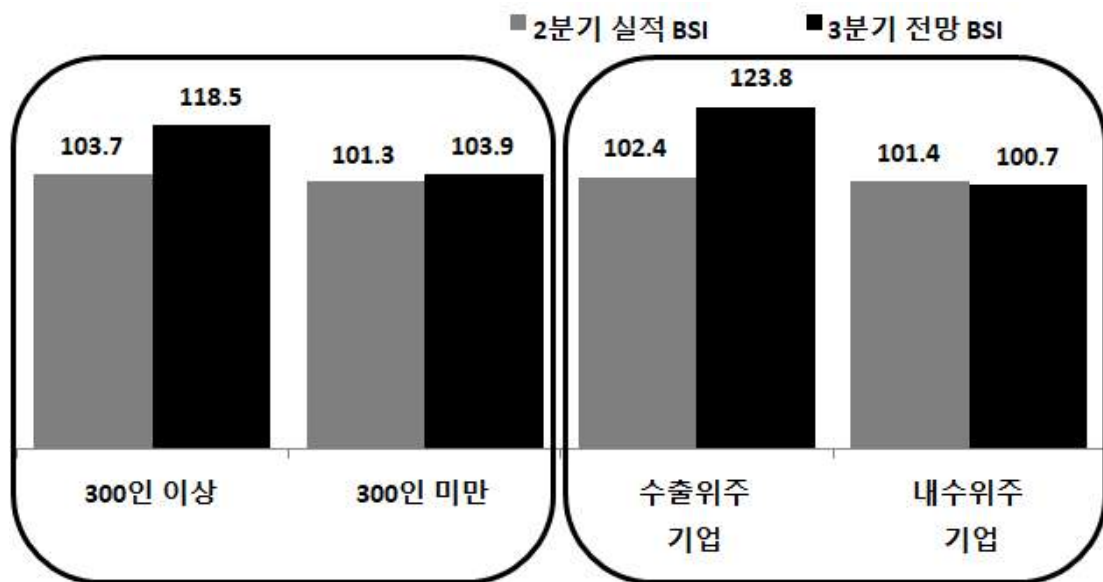
- 3분기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는 업종은 ‘기계’(126.5), ‘화학·정유’(122.2), ‘자동차 및 부품’(115.4), ‘식음료’(114.3), ‘철강·금속’(110.5) 등임.
- ‘자동차 및 부품’업종의 경우 2분기 실적BSI가 ‘94.9’로 기준치를 하회했지만, 3분기 전망BSI는 ‘115.4’로 호전될 것으로 내대보고 있고, ‘기계’업종은 실적과 전망 BSI 모두 ‘126.5’로 기준치를 웃돌며 긍정적인 체감경기 호전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단, 지난해 말부터 호조를 보였던 ‘IT·가전’업종은 실적과 전망 BSI가 각각 ‘86.8’, ‘76.3’으로 기준치를 밑돌았음.



4. 기업 형태별 전망

- 창원 제조업의 규모별, 매출형태별 기업군 모두 기준치를 상회한 체감경기 실적과 전망 BSI를 보였음.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기업군은 300인 이상 수출위주 기업임.
- 규모별로 상시 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의 실적과 전망 BSI가 각각 ‘103.7’, ‘118.5’로 조사되어 ‘300인 미만’ 기업의 실적(101.3)과 전망 (103.9) 보다 높은 지수를 나타냈음.
또 매출형태별로 ‘수출위주’ 기업의 실적과 전망 BSI가 각각 ‘102.4’, ‘123.8’로, ‘내수위주’ 기업의 실적(101.4), ‘100.7’보다 높은 지수를 보였음.

기업 형태별 실적 및 전망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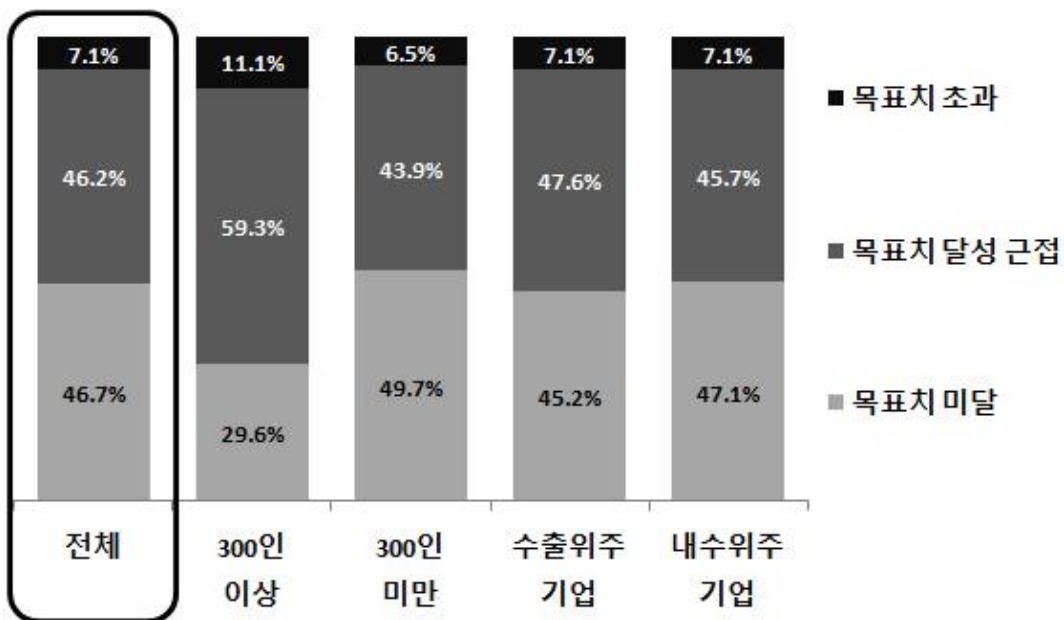
IV

상반기 경영실적과 하반기 위험요인

1. 상반기 실적 목표치 달성 여부

- 창원지역 제조업(n=182)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실적(영업이익)이 올해 초 계획한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46.2%가 ‘목표치를 달성했거나, 근접했다’고 답했고, 7.1%는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답했음. 반면, 46.7%는 ‘목표치에 미달했다’고 답했음.
- 특히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59.3%가 ‘목표치 달성·근접’을 11.1%는 ‘목표치 초과 달성’으로 답해 상반기 실적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목표치 미달’으로 답한 비중이 49.7%로 절반가까이를 차지했음.

상반기 실적 목표치 달성 여부(n=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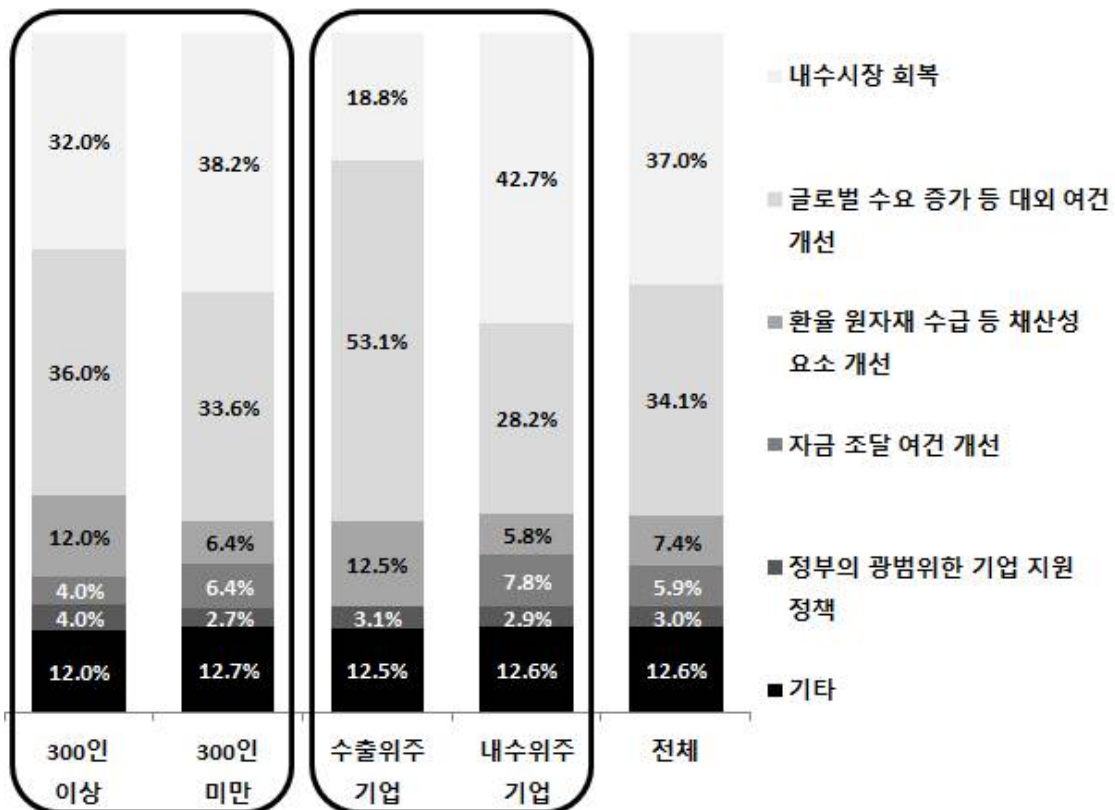


※ 수출위주 기업은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의미

○ 상반기 계획한 목표치를 달성했거나 초과했다고 답한 응답업체(n=94)를 대상으로 목표치 달성의 요인을 묻는 질문에, 37.0%가 ‘내수시장 회복’을 꼽아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글로벌 수요 증가 등 대외여건 개선’ 34.1%, ‘환율·원자재 수급 등 채산성 요소 개선’ 7.4%, ‘자금 조달 여건 개선’ 5.9%, ‘정부의 광범위한 기업지원 정책’ 3.0% 순으로 답했음.

○ 기업 형태별로 ‘300인 이상’기업과 ‘수출위주’기업은 ‘글로벌 수요 증가 등 대외여건 개선’ 각각 36.0%, 53.1%를, ‘300인 미만’기업과 ‘내수위주’기업은 ‘내수시장 회복’을 각각 38.2%, 42.7%로 가장 많이 꼽아 차이를 보였음.

올해 초 목표치 달성요인(n=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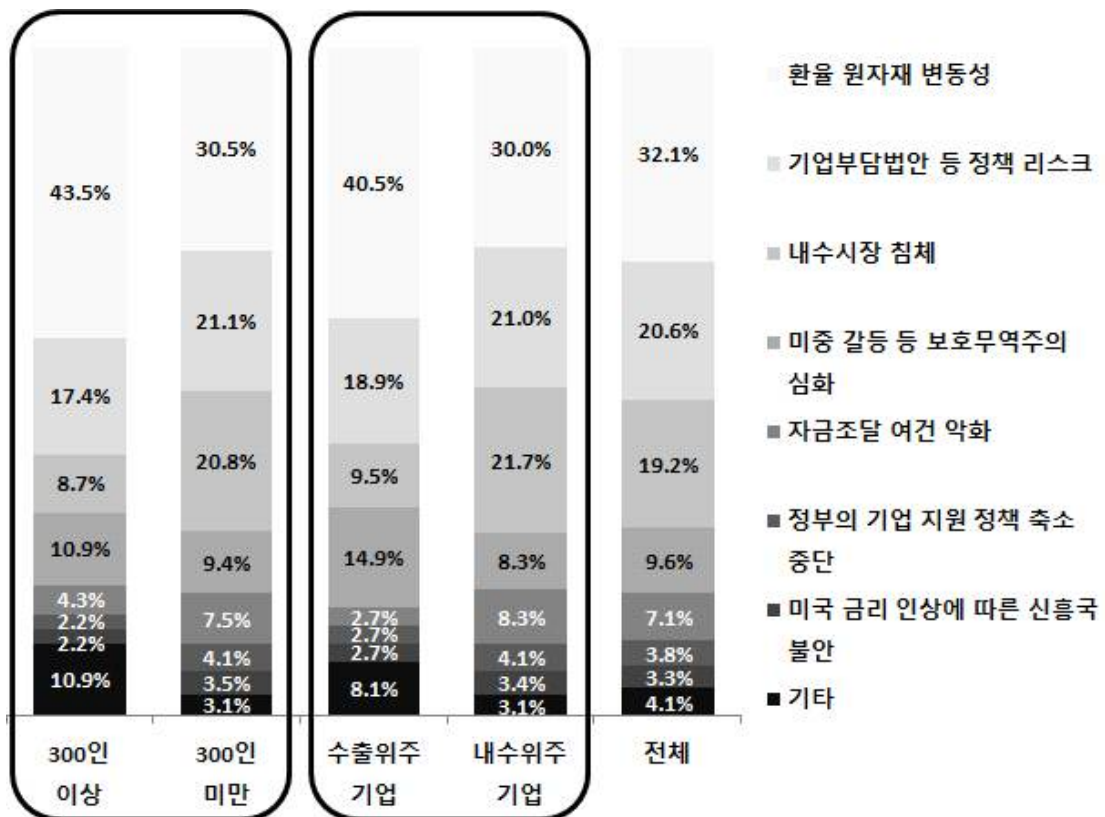


2. 하반기 예상되는 대내·외 위험요인

○ 하반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위험요인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n=182)의 32.1% ‘환율·원자재가 변동성’을 꼽아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최저임금·기업부담법안 등 정책 리스크’ 20.6%, ‘내수시장 침체’ 19.2%, ‘미·중 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심화’ 9.6%, ‘자금조달 여건 악화’ 7.1%,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 축소 및 중단’ 3.8%,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불안’ 3.3% 순으로 답했음.

○ 환율과 원자재가격 변동성 등 재산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최저임금 상승, 주52시간 근로제 확대시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 경영의 영향을 미치는 정책 리스크를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삼고 있음.

하반기 예상되는 대내·외 위험요인(n=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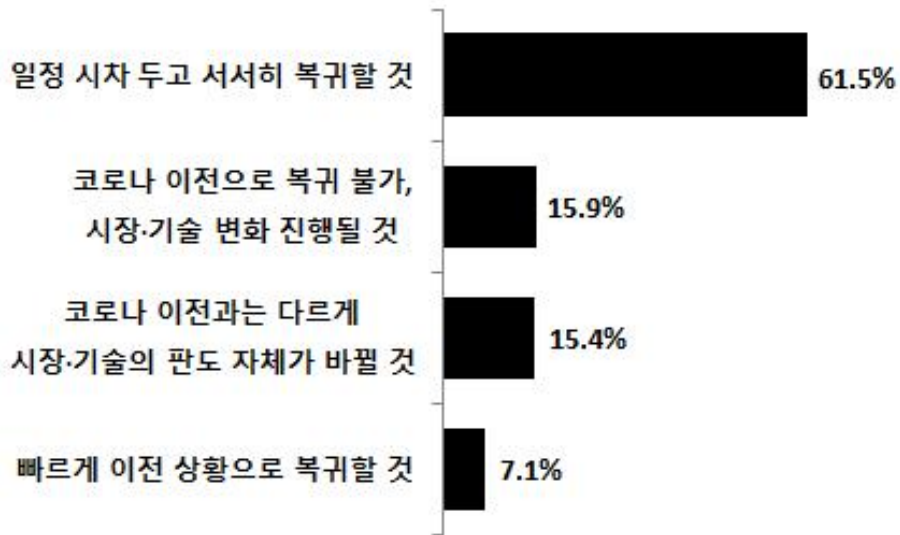


- 예상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응답으로 규모별·매출형태별 기업군 모두 ‘환율·원자재 변동성’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응답한 가운데, ‘300인 이상’기업과 ‘수출위주’기업은 ‘미·중 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심화’를, ‘300인 미만’기업과 ‘내수위주’기업은 ‘내수시장 침체’를 상대적으로 많이 꼽았음.

3. 포스트코로나시대 시장 및 기술 환경 전망

- 집단방역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종식 이후 시장과 기술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61.5%가 ‘일정 시차를 두고 서서히 이전 상황으로 복귀할 것’, 7.1%는 ‘빠르게 이전 상황으로 복귀할 것’이라 답했음. 반면 15.9%는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며, 시장·기술의 변화가 서서히 진행될 것이다’고 답했고, 15.4%는 ‘코로나 이전과는 다르게 시장·기술의 판도 자체가 크고 빠르게 바뀔 것’으로 내다봤음.

코로나19 종식 후 시장 및 기술 환경 전망(n=182)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과 관련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경제적 가치 창출을 우선시하되,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

다’는 응답이 73.6%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은 정부와 국회에 맡기고, 경제적 가치 창출에 더 매진해야 한다.’ 15.9%,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 수준을 넘어, 사회적 문제 해결의 직접적인 주체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도 10.4%를 차지했음.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업의 역할 인식(n=182)

